

#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차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을 중심으로-

이상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녀양육에서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녀와의 공감의 결정요인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아버지는 자녀와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감반응도 '대화양식'에 따라 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반면 어머니는 애정표현이나 보살핌을 통해서 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감반응도 주로 '돌봄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각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가설 1>과 <가설 2>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 1>의 지지는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이 공감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설 2>의 지지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이냐에 따라 공감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공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자녀양육에서 공감이 지니는 효과에만 관심을 두어 공감의 효과연구에만 주로 초점을 둔 반면 공감의 효과보다는 공감이 형성하는 요인과 원인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을 통해 부모와 자식간의 공감에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고 새로  
운 가정을 형성하며 죽음으로써 가정을 떠난다. 이  
와 같이 우리는 한평생을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며 가정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기술을 배우

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한다.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과 이탈의 원인 역시 가정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문제아의 뒤에는 문제 가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아를 낳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 답으로는 가정파탄,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이혼 등의 문제들이 거론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정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할지라도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자녀는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어느 한 쪽에게만 관심을 받고 있을 뿐 다른 쪽에게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자녀 역시 성장기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실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에 있어 부모의 지각과 자녀의 지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부모는 부모의 방식대로 자녀에게 이해와 관심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이러한 부모를 잘못 지각하여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꾸짖지만 자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미움, 또는 억압으로서 지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지각의 차이가 오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지각의 차이가 빚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요원인은 부모와 자녀가 평소에 맺고 있는 관계이다. 일. 예로 평소에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자녀가 벌을 받을 경우 자녀는 그 벌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반면 평소에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느끼는 자녀가 같은 벌을 받는다면 자녀는 그것을 억압으로서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부모와 자녀가 평소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같은 행동을 보이더라도 평소의 맺고 있는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에 의해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보면 이 부자관계와 모자관계 자체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벌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다를 수 있다. 사실 자녀양육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양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가족제도에서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위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일으켜 왔고,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의 차이는 부자관계나 모자관계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세심한 보살핌이나 돌봄보다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규율이나 규범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엄한' 훈육태도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는 옛말과 같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행동적, 정의적인 양육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차이는 여러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이다. 상호간의 자기노출은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미국인들은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인들은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하여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유교권문화의 나라에서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에게 자기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rnlund, 1975; 오세철과 정향철, 1982).

이와 같이 자기노출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와 어

머니의 차이는 자녀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어떻게 지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이것은 가족관계와 그에 따른 관계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자녀양육방식에서의 차이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공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감(empathy)은 상호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과 심리상태 혹은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써 상대방의 내적 경험을 매순간 함께 느끼는 정신 내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Rogers, 1957).

이러한 공감의 중요성은 Freud(1913)가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에 공감이 기여하는 바를 지적한 이후 많은 상담자들이 이를 상담장면에서 이용하여 왔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간의 공감이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자녀의 공감적 지각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일까?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공감으로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자녀와의 공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본 연구에서는 이 물음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전의 공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자녀양육에서 공감이 지니는 효과에만 관심을 두어 공감의 효과연구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효과보다는 공감이 형성되는 과정과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가족관계에서 부자관계나 모자관계에서 일어나는 공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족관계에서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대화양식'이 자녀와의 공감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

이다. 반면 어머니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수준'이 공감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토대로 자녀의 공감지각에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아버지는 그의 역할에 비추어 자녀와의 대화가 얼마나 원활한가에 의해서 공감수준이 결정되는 반면, 어머니는 자녀를 얼마나 잘 보살피는가에 의해서 공감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와 방법의 차이가 자녀와의 공감과정에 서로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먼저 고찰한 후 이어서 이러한 차이가 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1. 자녀양육방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

가족관계는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를 살펴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의한 영향으로 자녀의 양육이 부모위주라기보다는 자녀위주로 이루어진다. 한국과 일본의 엄마들은 아이가 울면 달래 주고, 배고르면 먹여주는등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일차

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양육 행위를 보인다. 이는 자녀의 식사와 수면시간을 부모의 스케줄에 맞추는 서구의 자녀양육 방식과는 사뭇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Azuma(1984)는 일본의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생겨나는 아마에(甘)(Doi, 1983)라는 애착이 이러한 아이본위의 양육방식에서 생겨났다고 보았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양육 과정에서 아이의 심신적 의존 욕구가 충족되며, 자녀는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물 통해서 스스로가 만족감과 안전함을 느낀다. 따라서 자녀는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든다. 이와 같은 모자관계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한편 동양문화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와 매우 다르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한 가정의 통솔자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에 바탕을 두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율과 행실을 내면화시켜 왔다.

동양문화에서 엄부자모상(嚴父慈母像)은 이상적 가족관계의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자녀를 다룰 때 권위에 바탕을 두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만일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강압적으로 이를 다스렸기 때문에 자녀에게 두려운 존재로서 각인되었다. 반면 어머니는 자녀를 다룰 때 애정을 갖고 자애롭게 대했으며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자애로운 어머니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Ho, 1986).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는 자녀와의 관계도 상이하게 맺도록 하게 한다. 어머니는 주로 자녀를 보살피고 돌보아주는 역할로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반면에 아버지는 자녀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로 자녀와의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즉, 어머니는 자녀를 얼마나 돌보아 주는가의 '돌봄수준'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자녀를 얼마나 지시 또는 통제하

는가의 '대화양식'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다음에서는 이 두 수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대화양식

인간간의 대화양식은 사회학자 Bernstein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다. 그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분석을 통하여 '지위지향적 대화'와 '인간지향적 대화'의 의사소통의 두 가지 형태를 규명하였다. 지위지향적 대화는 신분과 사회적 정체감에서 연령, 성별, 연령에 관계되는 역할에 따라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는 대화이다. 이러한 대화양식은 타인의 지위적인 속성(나이, 성, 사회적 위치등)에 대한 지각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관계, 즉 역할 대역할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인간지향적 대화는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양식이다. 즉, 이러한 대화양식은 타인의 개인적 속성(욕구, 의도, 동기등)에 대한 지각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관계, 개인 대 개인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양식으로 형성되는가에 따라 둘간의 대화 양식이 다르다고 보았다. 인간지향적 관계의 가족에서 부모는 자녀의 의도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에 입각하여 자녀와 대화를 갖는 반면에 지위지향적 관계의 가족에서는 자녀의 의도나 생각은 무시한 채 가족의 일원으로써 기대나 요구에 입각하여 대화를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에서는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보기보다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써만 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위지향적 관계의 가족에서 자란 자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떤 역할관계로서 만나는가를 의미한다. 반면에 인간지향적

관계의 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역할 관계가 중요하다더라도 특정 행동의 바람직함의 여부는 그 역할 관계를 초월해서 상대방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Bernstein(1972)의 연구에 기초하여 Bearison & Cassell(1975)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에 있어서 인간지향적 가정 출신의 자녀가 지위지향적 가정 출신의 자녀보다 효과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 이유를 사람들간의 대화에서 화자는 청자의 관점을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여 서로의 관점을 조화시켜야만 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지향적 가정 출신의 자녀들은 지위지향적 출신의 자녀와는 달리 상대방의 욕구, 의도, 동기 등의 기초하여 반응함으로써 '탈중심화' 되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돌봄수준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것이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자녀와 부모 혹은 가족 내의 다른 누구와의 특별한 애착관계를 통해서 아이에게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만 원만한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Kaplan & Sadock 1991). 이 때 부모의 반응은 아이가 어떤 형태의 애착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의 돌봄수준은 이 자녀의 반응에 대하여 예민 또는 무감각, 수용 또는 거절, 협조 또는 방해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반응은 아이의 성장발달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나타나는 성격이나 신체증상의 특성을 결정짓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Baker & Merskey 1982).

그 동안 부모의 돌봄수준과 자녀의 성격형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Benjaminsem et all 1984; Agrawal & Saksena 1977). 이들 연구들의 결과들은 한결같이 부모의 돌봄이 자녀의 원만한 성격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공감의 결정요인으로서 부모의 대화 양식과 돌봄수준

Rogers(1975)에 의하면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지각 세계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순간 순간 그 사람의 내부에 흐르는 의미의 변화, 두려움, 분노, 상냥함, 혼란 등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일시적으로나마 그의 삶을 살며, 그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의미까지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위협적일 때에는 그가 전혀 느끼고 있지 않는 느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그 개인이 두려워하는 요소를 접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공감자가 감지한 그 사람의 세계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Halkides(1958)는 실제 상담장면에서 공감이 상담효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20쌍의 내담자-상담자 면접원을 표집하여 3명의 평정자에게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실성의 정도에 관해 평정하게 한 후 내담자 집단을 성공집단과 실패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성공의 준거와 관계변인간에 의미있게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자가 제공하는 조건이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Halkides의 연구 이후로 Combs, Avila 및 Parkey(1971)은 공감이 모든 조력관계에서 가장

결정요인임을 보고하였으며, Truax와 Charkuff(1967)는 공감에 상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 특성이라고 하였다. Truax와 Charkuff(1967)는 공감과 그 밖의 핵심적인 촉진적 조건에 관한 연구를 지향하였으며 정확한 공감척도(accurate empathy scale)를 이용하여 공감적 이해가 심리치료의 결과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인 증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Hansen 등(1982)의 연구에서도 초기 상담관계에서의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공감은 여러학자들에 의해 가장 촉진적인 상담의 조건임을 인정받아 왔다(Luborsky, Chandler, Aeurback, Cohen & Bachrach, 1971).

이렇듯 상담자들 사이에서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감을 향상시키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공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법들은 공감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그 결과로 공감에 관한 연구들은 공감의 산물을 연구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감이 어떻게 유발되고 그러한 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과정에 관한 연구는 공감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산물보다는 비교적 등한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Scodel와 Mussen(1953)은 성격 유형에 따른 공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고정관념의 생성으로 인해 공감이 저해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의 연령과 성별은 같았고, 권위주의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무작위로 섞어서 쌍을 만들었다. 그런 후 20분 동안 학생들은 자유롭게 라디오, TV, 영화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대화 후에 이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방이 자신을 평가한 내용을 추정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권위주의적 학생들은 상대방이 실제 권위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자일 것이라고 지각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의 반응도 정확하게 추정해 내지 못했다. 대조적으로 비권위주의적 학생들은 상대방을 권위주의자와 비권위주의자로 변별해서 지각을 하였고,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하게 추정해 냈다. 즉, 권위주의자들은 자신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을 파악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추정해 내지 못한 반면에 비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을 변별해서 지각함으로써 그들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공감 정도도 높았다.

이와 같이 공감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감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규정짓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공감의 정의는 구성요소에 따라 크게 다음의 네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박성희, 1994). 즉 공감을 정의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Batson, Fultz, & Schoenrode, 1987; Eisenberg & Miller, 1987; Freud, 1953; Lipps, 1906; Winnicott, 1965 등등), 공감을 인지적인 요소로서 규정하고 타인을 정확히 지각하는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온 연구들(Borke, 1971; Deutsch & Madle, 1975; Piaget & Inhelder, 1969; Dymond, 1940; Kerr & Speroff, 1954), 공감의 의사소통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박성수, 1986; Barkam & Shapiro, 1986; Rogers, 1957, 1975; Truax, 1967, 1972)과 복합요인설을 주장한 것(김계현, 1991; Barret-Lennard, 1981; Davis, 1980; Hoffman, 1975, 1977, 1983; Feshbach, 1973, 1978, 1982)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감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 경우를 살펴보면 Lipps(1907)은 공감을 공유된 정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Hoffman(1984)은 공감을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Batson, Fultz, & Schoenrode(1987)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한 결과로서 경험된 타인지향적인 배려, 자비, 상냥함의 느낌이라고 하였으며, Barnett (1982)는 다른 사람의 정서와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치되는 정서의 대리적 경험이라고 하였다. 또한 Eisenberg와 Miller(1987)는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나 조건의 이해로부터 촉발된 그와 부합하는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의 정서적인 면과는 다소 특성이 다르지만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의사소통적인 면이 있다. 이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행위는 타자의 내면적인 세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한 바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전달할 때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의사소통을 강조하여 Carhuffu와 Truax(1965)은 공감을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의 의미를 내담자에게 반영하고 되돌려주는 상담자의 언어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 '공감을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 측면을 봄으로써 기본적으로 인지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의사소통의 측면은 역시 공감의 인지적인 부분의 일부분으로써 언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공감을 '타자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Mead, 1934; Chandler, 1974), 공감의 인지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공감되지는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지적인 이해, 상황적 정보의 인지가 곧 공감을 일으키지 못할 때도 있음을 알 수 있다(김계현, 1995).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 분리된 연구 전통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증가되고 있다. 공감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 '공감에 대한 이해는 공감에 대한 정의적

(affective), 인지적(cognitive) 요소 양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을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합의에 도달해 있다(Davis, 1980; Hoffman, 1975, 1977, 1983; Feshbach, 1973, 1978). 따라서 현재 공감에 관한 연구들은 이 양 측면을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감을 정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분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공감에서의 차이와 연결지을 수 있다. 위에서도 본 것처럼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보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가 주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유대로 맺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 대한 훈육을 통해서 자녀를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가 주로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공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있다면 이들간에서 자녀에 대한 공감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도 서로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아버지는 주로 인지적 요소가 강한 대화양식에서 공감수준이 결정되는 반면에 어머니는 감정적 요소가 강한 돌봄수준에서 공감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관계에서 상호간의 공감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중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감에 초점을 두었다. 부모와 자녀관계는 한 사람의 인격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Johnson(1978)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적응능력을 키운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와 자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능력의 함양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문제아' 또는 '일탈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일탈아의 예를 보면 그들은 일반아에 비해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로부터 양육되었거나, 지적인 성취에 대해 적절한 관심과 배려를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양육되었으며, 대개 학업성적을 낮게 유지한다(원호택, 1991).

그렇다면 이렇듯 부모와 자녀관계를 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공감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이 공감이 아버지와 어머니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지시나 훈계를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규범이나 도리를 내면화시키는 반면 어머니는 보살핌이나 돌봄을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애정이나 남을 배려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맡은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녀와의 공감반응양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는 자녀와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감반응도 앞 절에서 언급한 '대화양식'에 따라 주로 결정될 것이다. 반면 어머니는 애정표현이나 보살핌을 통해서 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감반응도 주로 '돌봄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하여 갖는 공감수준의 결정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수준에 대하여 이와같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I.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예언 I-1.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지위지향적 대화에서 보다 인간 지향적 대화에서 더 높을 것이다.

#### 예언 I-2.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은 돌봄수준이 낮은 부모보다 높은 부모가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II.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예언 II-1.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대화양식이 아버지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예언 II-2.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돌봄수준이 어머니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선정된 피험자들은 서울시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101명과 여학생 52명으로 총 153명이었다. 이 중에서 8명은 응답 누락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어 자료분석은 총 14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2. 조사 도구

#### 1) 대화양식의 측정

대화양식의 측정은 Bearison과 Cassell(1975)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서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6개의 상황으로 만들어, 이것을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학생 60명에게 배포하여 각 상황에서 그릇된 행동을 한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언어적 반응을 적어 보게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을 선별하여 표1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양식 분류준거에 맞추어 인간지향적 대화양식과 지위지향적 대화양식으로 구분하였다. 이 표는 Bearison과 Cassell(1975)이 제작한 준거로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작한 준거이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6개 상황 중에서 의사소통반응이 연구의 의도대로 적절하게 표현된 4개의 상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에서 얻어낸 의사소통반응 중 2개의 지위지향적 반응과 2개의 인간지향적 반응을 선정하여 각 상황에 4개의 답지를 마련하였다. 피험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

으로 질문하였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각 상황에서 평소 얼마나 각각의 언어반응을 사용하는지 10점 만점의 점수할당방식으로 평정케 하였다.

예를 들면, "당신이 휴일이라서 TV에서 재미있는 프로도 많이 하고, 중간고사가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공부도 잘 안 되고 해서 머리도 식힐 겸 TV를 보고 있었다."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어떻게 말하실 것인가를 아래에 제시된 4개의 답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응답부터 가장 적게 사용하는 응답까지 총 10점을 주고 점수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이 상황에서 피험자에게 주어진 답지는 인간지향적 반응 2개( TV보느라고 시험공부를 못하면 시험을 망칠 수도 있잖니; 공부하느라 머리가 복잡한가 보구나 TV좀 보다가 공부해라)와 지위지향적 반응 2개(야, 너 뭐하는 애야? 다음주부터 시험이라면서, 얼른 들어가 공부해; 너 공부안하고 자꾸 TV만 보면 다음부터는 아예 TV를 못보게 할거야)였다.

본 조사에서의 피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본 질문지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신뢰도는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4개의 상황에서 상황간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이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에서 보면 상황 3과 상황 2간의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각 상황에서 얻어진 대화양식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피험자들의 중앙치(5.57) 중심으로 높은 집단을 인간지향적 대화집단으로, 낮은 집단을 지위지향적 대화집단으로 나누었다.

표 1.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분류준거

**언어유형세부적 준거**

지위 지향적

1. 명령: 아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설득 없이 단지 외연적인 가능성만을 아들에게 제시함.
2. 언어적 벌: 아들의 행동에 대해 욕을 하거나 꾸짖음.
3. 간접적 벌: 아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4. 한정된 규칙을 강조하는 언어: 특별한 시간, 장소,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한 경우
5. 보편적 규칙을 강조하는 경우: 어느 문화권내에서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규칙에 중점을 둠
6. 지위적 규칙을 강조하는 언어: 아들의 지위(연령, 성, 계급)에 중점을 두고 아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7. 가정의 규범: 어떤 특정한 가정에만 적용되는 기준에 중점을 두는 것

인간 지향적

1. 허용: 아들의 행동의 긍정적인 동기를 강화하는 경우
2. 교섭: 특별한 조건을 밝히는 경우
3. 보상: 아들의 행동 규제를 위하여 아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4. 회피: 아들의 문제 행동을 문젯거리로 보지 않거나 혹은 이를 설명하는 경우
5. 부모 지향적 인지적 언어: 아들의 행동 결과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부모의 입장이 고려되는 경우
6. 아들이향적 인지적 언어: 아들의 행동 결과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는 경우
7. 타인지향적 인지적 언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고려나 설명을 하는 경우
8. 부모 지향적 인지-정의적 언어: 부모의 입장에 대한 고려와 정의적 측면이 복합된 경우
9. 아들 지향적 인지-정의적 언어: 아들의 입장에 대한 고려와 정의적인 측면이 복합된 경우
10. 타인 지향적 인지-정의적 언어: 타인의 입장에 대한 고려와 정의적인 측면이 복합된 경우

표 2. 각 상황에서 대화양식 점수간의 상관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1	.31**	.30**	.23*
상황 2	.16	.40**	
상황 3	.33**		

\*  $p < .01$ , \*\*  $p < .001$

**2) 돌봄수준의 측정**

돌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arker등(1979)이 개발한 PBI(부모-자녀간의 결합형태 검사)의 한국판(송지영 1991)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5개의 문항(12개의 돌봄문항, 13개의 과보호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피검자는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기억하여 각 항목에서 '아주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전혀 안 그랬다'의 4점 평정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측정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돌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2개의 돌봄문항만 사용하였다.

부모의 돌봄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검사의 문항내용은 동일하였다. 본 검사에서 사용한 돌봄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 주셨다; 나에게 쌀쌀하게 대하시는 편이었다;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하셨다; 나에게 다정다감 하셨다; 나와 함께 대화할길 즐기셨다;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셨다; 내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듯 했다; 내가 원치 않은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셨다; 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 주셨다; 나와 가끔 이야기를 하셨다; 나를 칭찬해 주셨다. 이들 12개의 문항에 대해서 아주 그랬다부터

전혀 안그랬다까지 4점 평정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나 타당도에 관한 정보는 상기 송지영(1991)의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 3) 공감수준의 측정

본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감수준의 측정은 자녀의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공감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rkhuff(1969)의 기법을 우리 실험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공감반응을 유도하는 상황은 홍경자(1983)가 제작한 의사소통기술에서 제시된 상황진술 3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3개의 상황진술은 다음과 같다.

#### 상황 1.

다른 사람들은 농담도 참 잘하고 잘 어울리는데, 나는 왜 그런 얘기꺼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고, 그래서 친구도 없고 항상 외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할 지 모르겠어요.

#### 상황 2.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봐도 점수가 엉망이에요. 물론 저도 잘하고 싶지만 정말 별 도리가 없어요. 머리속이 온통 혼란스럽고 걱정만 잔뜩 있어요.

#### 상황 3.

오늘은 정말 신이 나요. 제가 반장후보로 출마했는데 뽑혔거든요. 저희 반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나 봐요.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각각의 상황진술문이 제시되고 난 후, 먼저 이들 상황에서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

하실까를 자유기술식으로 적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의 그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이 말씀을 하신 아버지는 당신의 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이 말씀을 하신 아버지는 당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얼마나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셋째 아버지는 이 말씀에 아버지의 느낌이나 생각을 얼마나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까? 넷째 이 말씀을 하신 아버지는 당신이 얼마나 잘 이해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 4가지 질문에 대해서 7점 평정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상황진술에서 4가지 질문에 대한 평정값을 모두 합산하여 공감반응수준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공감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3개의 상황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얻어진 평정점수를 가지고 상황간의 상관관계를 구해본 결과를 표 3에서 제시하였다. 각 상황간의 상관이 모두 유의미하여 상황간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상황진술에서 공감 점수간의 상관관계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1	.64**	.54**
상황 2	.46**	

\*  $p < .01$ , \*\*  $p < .001$

### 3.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시내 중학교 세 학급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대화양식, 돌봄수준, 공감수준의 측정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의 제시 순서는 아버지-어머니 변인과 대화양식, 돌봄수준, 공감수준의 변인을 피험자 별로 무

선적으로 배열하여 제시순서별 효과를 상쇄시켰다.

피험자들에게 조사의 목적을 중학생들이 평소와 부모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지시를 비롯한 조사의 모든 진행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전체 소요시간은 대략 40분이 경과하였다.

## 결 과

### 1. 공감수준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감수준 질문지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을 아버지와 어머니별로 산출하였다. 여기서 공감점수는 공감수준 측정에서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지표는 3가지 상황진술에서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자녀의 입장을 공감하여 반응한 것인가를 자녀의 지각을 통하여 알아본 것이다. 각 상황에 4가지 질문이 있었으며, 또한 여기서 이러한 상황이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합쳐 평균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표 4. 부모의 공감수준의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어머니
남자(n=88)	4.72*(1.09)	4.63 (.90)
여자(n=48)	5.03 (1.19)	5.05 (1.02)

\* 7점 척도에서 점수가 클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임

표 4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t(143) = .11$  n.s.).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평균(4.00) 이상으로 자녀에 대해서 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자와 여자간의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의 공감에 대해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34)=4.31, p<.04$ ).

### 2. 공감양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을 표5에서 제시하였다. 대화양식은 4가지 상황에서 반응을 모두 합쳐서 평균을 내어 제시하였으며, 돌봄수준은 12개의 문항들의 합계를 산출하여 평균을 제시하였다. 대화양식은 점수가 클수록 인간지향적 대화를 하는 것이며 점수가 작을수록 지위지향적 대화를 하는 것이다. 돌봄수준은 점수가 클수록 많이 돌보아 주는 것이다.

표에서 제시된 결과를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을 분리하여 각각 따로 t검증을 한 결과, 대화양식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하여 더욱 더 인간지향적으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t(143)=3.01, p<.003$ ], 그에 반하여 돌봄수준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하여 돌봄점수가 더욱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t(143)=3.48, p<.001$ ]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맡고 있는 역할 차이에 미루어 볼 때 예상대로 나온 것이다.

표 5. 부모의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의 평균(표준편차)

	대화양식	돌봄수준
아버지(n=144)	6.29*(2.15)	2.83**(.49)
어머니(n=144)	5.60 (2.22)	3.00 (.41)

\* 10점 점수할당식 평정점수에서 점수가 클수록 인간지향 대화

\*\* 4점척도에서 점수가 클수록 돌봄수준이 높은 것임

여기서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부모의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이 공감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을 각각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사이에 공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대화양식에 따른 공감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화양식의 측정에서 제시된 네가지 상황에 대한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 후 전체피험자들의 중앙값(5.75)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은 집단을 인간지향적 대화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그보다 낮은 집단을 지위지향적 대화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집단간의 공감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대화양식 집단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점수를 산출하여 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대화양식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공감수준의 평균 (표준 편차)

	인간지향(n=73)	지위지향(n=70)
아버지	5.16*(.87)	4.44 (1.06)
어머니	5.02 (1.01)	4.60 (1.16)

\* 7점 척도에서 점수가 클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표 6 에 기초하여 대화양식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공감 수준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앞에서도 본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간에서는 공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대화양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고 있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지향적인 대화를 하는 부모가 지위지향적 대화를 하는 부모보다 공감수준이 높았다 [F(1,141)=19.56,  $p < .001$ ]. 또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인간지향적인 집단이 지위지향적 집단에 비해 공감 수준이 높았다 [F(1,140)=5.10,  $p < .03$ ]. 이들 결과는 인간지향적 대화를 하는 부모

가 지위지향적 대화를 하는 부모보다 공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돌봄수준에 따른 공감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돌봄문항 점수의 중앙값(2.92)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을 높은 돌봄수준집단, 낮은 집단을 낮은 돌봄수준집단으로 구분하여 공감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표 7에 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7 에 기초하여 돌봄수준에 따른 공감수준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아버지에서 돌봄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공감 수준이 높았다 [F(1,135)= 9.22,  $p < .003$ ]. 또한 어머니의 돌봄수준에서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공감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F(1,135)=5.24,  $p < .03$ ]. 위의 결과로 볼때 부모와 자녀간의 공감수준의 차이는 돌봄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돌봄수준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높은 돌봄(n=65)	낮은 돌봄(n=72)
아버지	5.09*(.92)	4.57 (1.08)
어머니	5.01 (1.15)	4.56 (1.11)

\* 7점 척도에서 점수가 클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이렇게 볼 때 부모의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은 모두 자녀에 대한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앞의 표 5의 결과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대화양식에서 인간지향적 대화를 하며, 이에 반해서 어머니는 돌봄수준에서 높은 보살핌과 애정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양식으로 자녀와 만남을 갖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공감양식에서도 서로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표 8과 표 9를 작성하였다. 앞의 표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공감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뒤의 표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공감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8. 아버지와 자녀간 공감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R change	B	$\beta$	t
대화양식	.25	.17	.36	4.27***
돌봄수준	.04	.54	.25	2.97
(constant)		2.14		4.78***

\*\*  $p < .01$ , \*\*\*  $p < .001$

표 9. 어머니와 자녀간 공감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R change	B	$\beta$	t
대화양식	.04	.09	.19	2.27
돌봄수준	.19	.98	.36	4.25***
(constant)		1.22		1.90

\*\*  $p < .01$ , \*\*\*  $p < .001$

표 8과 표 9의 결과는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부모의 공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아버지와 자녀간의 공감수준의 결정요인은 대화양식( $t = 4.27, p < .001$ )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돌봄수준( $t = 2.97, p < .1$ )으로 나타났다. 대화양식은 공감수준에 있어 2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돌봄수준이 첨가되었을 때 4%의 설명력이 추가되었다( $R = .54, F = 29.17, p < .001$ ). 이 결과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공감 수준의 주요 결

정요인이 대화양식임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와 자녀간의 공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 9를 작성하였다. 이 결과도 돌봄수준과 대화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부모의 공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것이다.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공감수준의 경우는 돌봄수준( $t = 4.25, p < .001$ )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화양식이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돌봄수준은 공감수준에 있어 1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화양식이 첨가되었을 때 4%의 설명력이 추가되었다( $R = .48, F = 20.40, p < .001$ ).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한 공감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돌봄수준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서의 공감양식에서의 이와 같은 차이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공감반응 점수와 어머니의 공감반응 점수 각각에서 중간값인 4점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공감점수는 높고 어머니의 공감점수는 낮은 집단과, 이와 반대로 어머니의 공감점수는 높고 아버지의 공감점수는 낮은 집단을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두 집단에서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이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공감을 높이 평가한 자녀의 공감결정 요인은 대화양식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 = 2.51, p < .01$ ), 그 다음으로 돌봄수준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대화양식은 공감수준에 있어 2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돌봄수준이 첨가되었을 때 2%의 설명력이 추가되었다( $R = .50, F = 3.66, p < .05$ ). 이 결과는 아버

지의 공감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자녀일 수록 부모의 대화양식이 공감의 주요결정 요인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공감을 하는 자녀의 공감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아버지				
독립변인	R change	B	$\beta$	t
대화양식	.25	.24	.53	2.51**
돌봄수준	.02	-.11	-.06	-.31
(constant)		3.72		3.70

어머니				
독립변인	R change	B	$\beta$	t
대화양식	.08	.04	.16	1.08
돌봄수준	.12	.34	.25	.70
(constant)		2.22		2.73

\*\*  $p < .01$ , \*\*\*  $p < .001$

표 11.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공감을 하는 자녀의 공감수준에 대한 회귀분석표

아버지				
독립변인	R change	B	$\beta$	t
대화양식	.13	-.14	-.43	-.90
돌봄수준	.05	.98	.59	1.23
(constant)		1.63		1.13

어머니				
독립변인	R change	B	$\beta$	t
대화양식	.13	-.01	-.02	-.10
돌봄수준	.40	1.74	.74	2.80**
(constant)		.34		.21

\*\*  $p < .01$ , \*\*\*  $p < .001$

한편 표 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아버지보다 어

머니의 공감수준을 높게 평가한 자녀의 경우에는 돌봄수준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80, p < .01$ ). 그 다음으로 대화양식이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양식은 공감수준에 있어 1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돌봄수준이 첨가되었을 때 40%의 설명력이 추가되었다( $R = .73, F = 5.76, p < .05$ ). 이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자녀일 수록 돌봄수준이 공감결정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수준의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른 공감의 결정요인은 부모의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이었다. 대화양식은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인간지향적인 대화를 하는가 또는 지위지향적인 대화를 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돌봄수준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의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은 자녀가 부모들이 자기와 얼마나 공감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특히 이 두 요인의 작용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따라 달리 나타난다. 아버지의 공감수준은 주로 자녀와의 대화양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어머니의 공감수준은 돌봄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문화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에서 갖는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아버지는 주로 자녀의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규율이나

규범의 내면화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어머니는 주로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보살핌이나 애정의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양식을 통해서 만남을 갖는 반면 어머니는 돌봄수준에서 만남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을 결정하는 요인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자녀와의 대화양식이 공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반면 어머니에게는 돌봄수준이 자녀와의 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얻어졌다. 얻어진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첫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공감수준은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부모의 대화양식의 점수에 따라 인간지향적 대화집단과 지위지향적 대화집단을 구분한 후, 변량분석을 통하여 각 집단에서의 공감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와 부모와의 공감반응 수준은 지위지향적 관계에서보다 인간지향적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화양식이 공감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돌봄수준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공감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역시 돌봄수준을 낮은 돌봄과 높은 돌봄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공감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도 돌봄수준이 높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공감반응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와 부모간의 공감수준의 결정요인이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다를 것이라는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공감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대화양식이 공감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지하여 주었으며,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

에서는 자녀에 대한 돌봄이 공감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버지냐 어머니냐에 따라 공감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관계에서 부여되는 역할에 따라 상대방이 지각하는 공감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공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공감이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왔다(Barret-Lennard, 1981; Davis, 1980; Hoffman, 1975, 1977, 1983; Feshbach, 1973, 1978, 1982). 본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대화양식은 그 속성이 인지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돌봄수준은 정서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돌봄은 자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행위속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돌봄'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은 순수한 의미에서 감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행위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화는 인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행위이며 복잡한 인지적 사고와 판단의 산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공감수준이 인지와 감정의 두 요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감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는 여성과 남성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얻어진 결과와도 부합된다. 성격특성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에서 보면 여성은 감정적이며 애정적인 반면에 남성은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라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Allegeier & McCormick, 1983; Henley, 1977; Hyde & Rosenberg, 1984). 이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감수준이 아버지는 대화양식에 의해 결정되고 어머니는 돌봄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돌봄은 감정적이며 애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연결되어지며, 대화는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인 아버지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결과와 연결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내의 상류가정의 일부 학생들만을 학급단위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의 공감수준을 직접 부모를 통해서 측정하지 않고 자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부모의 실제 공감수준을 잴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지각된 공감수준을 재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감수준을 자녀를 통해서 측정할 때 장점도 있지만 자녀에게 지각된 공감은 이미 자녀의 여러 가지 주변적 요인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셋째, 본 연구는 상관연구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의 신뢰도는 일차 검증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될 수도 있지만 타당도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이 연구자가 의도한 변인을 정말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미지수

이며, 이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계현(1995). 카운셀링의 실재, 증보판, 서울: 학지사.
- 박성희(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오세철·정향철(1982). 한국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연구. 오세철(저), 한국인의 사회심리, pp. 159-202. 서울: 박영사.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경자(1983). 의사소통기술 훈련효과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소,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 15집, pp. 197-211.
- Allgeier, E. R., & McCormick, N. B. (1983). *Changing boundaries: Gender roles and sexualbehavior*. Palo Alto, CA: Mayfield.
- Azuma, H. (1984). Psychology in a non-western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9, 145-155.
- Barnlund, D. C.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in Japen and United States*. Tokyo: Simul Press.
- Barnet, M. A., Howard, J. A., Melton, E. M. & Dino, G. A.(1981). Effect of inducing sadness about self or other on helping behavior in high and low empath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920-923.
- Barrett-Lennard, G. F. (1981). The empathy scale: Refinement of f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Batson, C. D., fultz, J. & schoenrode, P. A. (1987). Distress and empathy: Two qualitatively distinct vicarious emotions with different motivational consequences.

- Journal of Personality*, 55, 19-39.
- Bearison, D. J., & Cassell, T. J. (1975). Cognitive decentration and social codes: Communicative effectiveness in young children from differing family context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29-36.
- Bernstein, B. (1972). A sociolinguistic approach to socialization with reference to educability. In J. Gumperz & D.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oker,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11, 26-36.
- Carkhuff, R. R. (1967).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facilitative interpersonal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4, 67-72.
- Carkhuff, R. R. (1969). *Helping and Human-Relation* (volume on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Chandler, M. J., Greenspan, S., & Bareboim, C. (1974). The assessment and training of role-taking and referential communication skills in institutionalized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10, 546-553.
- Combs, A. W., Avila, D. L., and Parkey, W. W. (1971). *The Helping Relationship Sourcebook*. Boston: Allyn and Bacon Inc.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 113-126
- Deutsch, F., & Madle, R. A. (1975). Empathy: Historic and current conceptualizations, measurement, and a cognitive theoretical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18, 267-287.
- Doi, T. (1983). *The anatomy of dependence*. Tokyo: Kodansha.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 Feshbach, N. D. (1973). Empathy: An interpersonal process. In W. Hartup (ed.), *Social understanding in Children and adults: Perspectives on social cogni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5, 25-35
- Feshbach, N. D. (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s in children.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8) New York: Academic Press.
- Feshbach, N. D. (1982).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in children. In N. Eisenberg-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Henley, N. M. (1977). *Body politics: Power, sex, and nonverbal communica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 Ho, D. Y. F. (1986). Chinese patterns of socialization: A critical review. In M. H. Bond (Eds.),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H. K.: Oxford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07-622.
- Hoffman, M. L. (1977). Empathy, its development and prosocial implications. In C. B. Keasey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2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on Empathy. In E. Izard, J. Kagan, & R. B. Zajonc(Eds.), *Emotions, cognitions, and behavior*. Cambridge, UK: Cambridge Univ. Press.
- Hoffman, M. L. (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yde,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 Johnson, Fern. (1978).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oward a Healthy Construction of Communicative Roles*. Paper presented at Central States Speech Association, Chicago.
- Lipps, T.(1907). Das Wissen von Fremden Ichen. *Psychologics Untersuchungen*, 1, 694-722.
- Loborsky, L. B., Chandler, M, Aeurback, A. H., Cohen, J., & Bachrach, H. M. (1971). *Factors influencing the outcoming of psychotherapy*: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95-113.
- Rogers, C. R.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unseling Psychologist*, 5(2), 2-10.
- Scodel & Mussen. (1953). Social perceptions of authoritarians and non-authoritaria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 181-184.
- Terkelsen, Kenneth G. (1980). *Toward a Theory of the Family Life Cycle*.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Elizabeth A Carter and Monica McGoldrick, eds. N. Y.: Gardner Press, Inc.
- Truax, C. B. & Carkhuff, R. R. (1965). Client and therapist transparency in the psycholtherapeutic encou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 3-9.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Truax, c. B. (1972). The meaning and reliability of accurate empathy rating: A rejoinder. *Psychological Bulletin*, 77, 397-399.
- Winncott, D. W. (1965). *The maturational proc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mpathy of Each Parent —Focusing on Communication Type and Level of Caring—

**Sa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tried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mpathy of each parent. In case of fathers, they mostly play their role through rational communications with their children, so that this study was hypothesized their empathy will be determined by their communication type. However, in case of mothers, they play their role by their affection or caring, so that their empathy could be determined by their level of caring. Therefore, this study set up hypotheses as follows: Hypothesis I.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mpathy of parents will be differentiated by the communication type and the level of caring. Prediction I-1.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mpathy of parents will be higher with the person-oriented communication than with role-oriented communication. Prediction I-2.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mpathy of parents is up to the degree of their parents' level of caring. Hypothesis II. The factor which influence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mpathy of their parents are different. Prediction II-1. In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the communication type will be the main the factor in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mpathy of fathers. Prediction II-2. I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the level of caring will be the main the factor in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mpathy of mothers. After the research, the result shows that both <Hypothesis I> and <Hypothesis II> are supported. the support of <Hypothesis I> means that the level of empathy is influenced by the communication type and the level of caring, and the support of <Hypothesis II> means that the factor of the level of empathy is different between fathers or mothers. The existing studies on empathy are simply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empathy in bringing up, so that they have mostly been the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empathy. But,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or and

the cause more than the effect of the empath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howed the factor of the empathy between fathers and children through the communication type and the level of caring, and it tested empirically the fact that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mpathy of each parent are decided by each different factors.